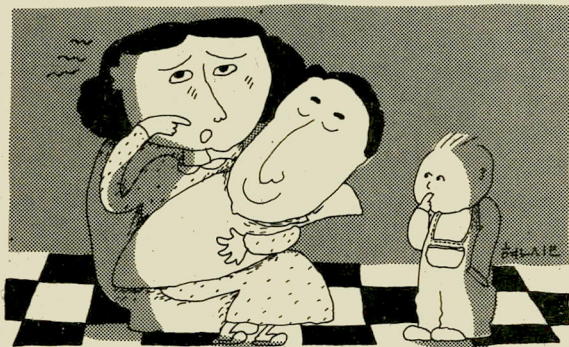


어느 날 필자의 진료실에 30대 중반의 아주 세련된 주부가 찾아왔다. 그녀는 결혼한 지 10여년이 되었으며, 1남2녀를 둔 강남의 전형적인 중상류층의 다복한 주부이다.

몇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소화장애가 오며,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만 나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남편만 보면 그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했다. 또한 자녀들 학교의 학부모들과 만나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생각되고 전에는 자신의 처지보다 못해보였던 사람들이 현재는 더 나아보여 무척 위축감을 느낀다고 했다. 남편은 장점도 꽤 있지만, 너무 외곬져서 모든 생활이 짜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 점이 얼마 전



남편만 보면 짜증나는 아내

까지 몰랐지만 이제는 숨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 부인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 살다보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외적인 변화, 예를 들면 경제적 파산, 배우자의 외도, 건강상의 문제 등이 부부간의 심적인 위기감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 또한 이 부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와 비교해 볼 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상대방의 문제점이 갈등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마음의 병까지 얻을 수 있다.

부모 자식간은 무조건적인 본능적 사랑이 관계의 근본이 된다. 못나도 내 부모, 모자라도 내 자식이라는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부부간은 다르다. 남의 아내보다 못생기거나 살림을 못하면 창피하고 친구의 남편보다 수입이 적거나 승진이 늦으면 눈흘기고 싶어진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일 것이다.

남편은 영원한 어린애란 이야기가 있다. 남편이 못나 보이면 밉고 창피한 마음 대신, 그러니까 내가 더욱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부부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 또한 남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을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 유대감,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위해 함께 바라보고 살아갈 한 방향의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문용/한국보훈병원·신경정신과장

시 리 문